

이차전지 Analyst 권준수 wkdud1222@kiwoom.com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수주 코멘트: ESS 수주 기대감 확대 속, 유의미한 고객사 확보는 고무적

◎ 미국 향 ESS 신규 고객사 확보, 비중국산 ESS 배터리 논의 가시화

)) 7/30일 동사는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ESS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2027.08.01~2030.07.31). 공급 기간은 3년으로 발표되어 있으나,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을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 포함

)) 금번 수주의 경우 고객사가 ESS SI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셀 단위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약 규모(약 5.9조원)를 감안 시 공급 물량은 약 43GWh로 추정됨(ASP \$100/kWh, 1,380원/달러 가정). 한편 폼팩터의 경우 그동안 고객사가 각형 LFP 배터리 셀을 사용해온 만큼 각형 형태로 출하될 것으로 추정(LGES는 현재 각형 배터리 개발 중). 동사가 6월 말 이후 ESS 수주를 50GWh 확보해놓은 만큼 금번 수주까지 감안 시 전체 수주잔고가 93GWh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내 유휴 CAPA를 활용할 예정. 후보 생산 공장으로는, 미시간주 랜싱 공장(구 Ultium 3공장), Stellantis-LGES JV 공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북미 ESS CAPA는 26년말 30GWh 수준에서 27년 40GWh초중반까지 확대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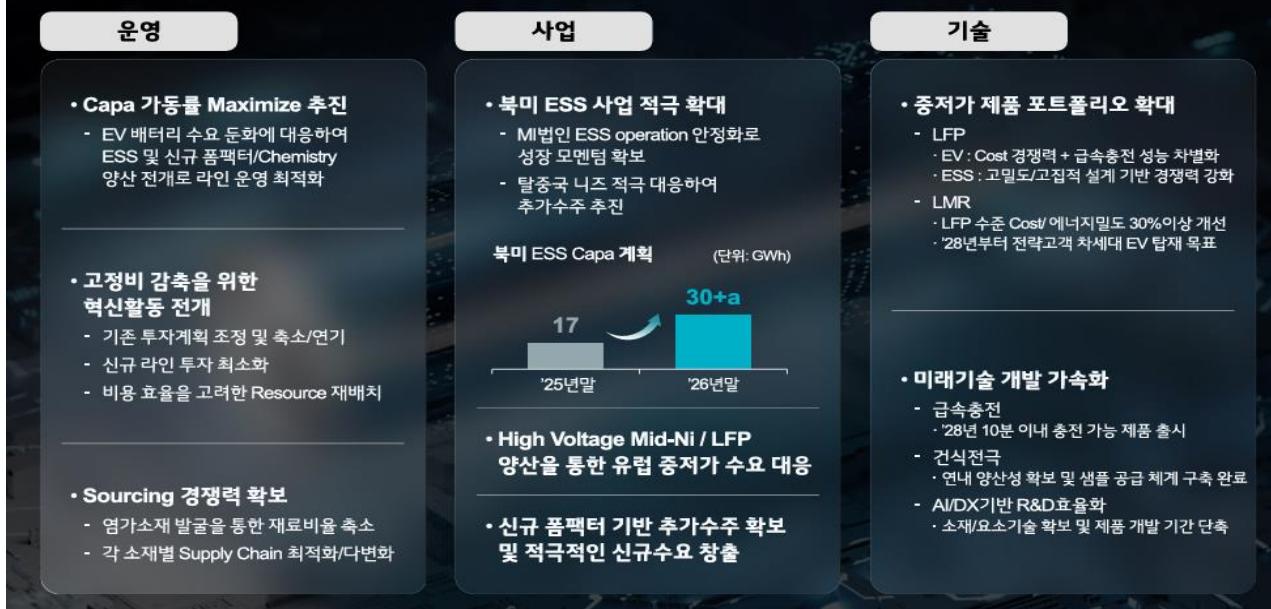
)) 한편, 미국 ESS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단독 공장에서 진행함에 따라 AMPC 세액공제 관점에서 100%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이로 인해 26년 이후 지배주주순이익의 상향 조정 가능성은 상존. 다만, 여전히 고객사 와의 AMPC 쉐어링에 대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후 AMPC 협상 방향성에도 주목할 필요

◎ 하반기 ESS 수주 모멘텀 유효, 관련 업체들 Trading 유효

))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시장 수요가 불확실해진 만큼, ESS 사업 성장에 주목할 필요. 특히 중국산 non-EV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301조 관세가 26년부터 기준 7.5%에서 25%로 상향되며, 그 외 미국 IRA 법안 개정으로 중국산 대체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반사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2Q25부터 미국 현지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 하반기 ESS 라인 Ramp-up을 통해 연말 기준 16.5GWh/년 CAPA를 가동할 예정. 한편, 소재 관점에서는 당분간 중국산 LFP 양극재(인도네시아 공장)를 활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7~2028년 이후부터는 공급사 다변화 가능성도 있어 일부 국내 업체들의 낙수효과도 기대. 당사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및 수주 모멘텀이 유효한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 대주전자재료를 이차전지 섹터 내 Top-picks으로 유지

LG에너지솔루션 하반기 Action Plan: 북미 ESS 사업 적극 확대

하반기 Action Plan



자료: LG에너지솔루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의 대 중국 ESS 배터리 관세율 정리

	기본	301조	펜타닐	상호	최종
현재	3.40%	7.50%	20%	10%	40.90%
2026년 이후	3.40%	25.00%	20%	10%	58.40%

자료: Kotr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미국의 대중 상호관세 34% 중 10%는 유지, 24%는 90일간 유예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3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